

금요 양성 2025년 4월 25일 시간경마다 바치는 찬미

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.

알렐루야! 프란시스 성인의 말을 사용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미합시다.

사본 전통에 있는 이 찬미가에 딸린 3 세트의 규칙을 보면 아래의 찬미가 매 시간경을 하기전에 형제들이 사용했던 성서적 문헌이었음을 제시해 준다.

<https://www.franciscantradition.org/francis-of-assisi-early-documents/the-saint/writings-of-francis/the-undated-writings/the-praises-to-be-said-at-all-the-hours/177-fa-ed-1-page-161>

시간경마다 바치는 찬미

¹거룩하시다, 거룩하시다, 거룩하시다.

전능하신 주 하느님,

지금도 “계시고” 전에도 “계셨고”^{목시 4:8 a}

또 앞으로 오실 분

“영원히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들 하세”.^{다니 3:57}

²주 우리 하느님,

당신께서는 “찬미와” 영광과 영예와 “찬양을”^{목시 4:11}

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나이다.

“영원히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들 하세”.^{다니 3:57}

³“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

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양을

받기에 마땅한 분이시나이다”^{목시 5:12}.

“영원히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들 하세”

⁴성령과 함께 성부와 성자를 찬양들 하세.

“영원히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들 하세”.^{다니 3:57}

⁵“주님의 모든 업적들아, 주님을 찬양하여라.”^{다니 3:57}

“영원히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들 하세”.^{다니 3:57}

⁶하느님의 모든 종들아,

그리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,

하느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아”.

“우리” 하느님을 “찬미하여라”. 묵시 19:5

“영원히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들 하세”. 다니 3:57

⁷“하늘과 땅아”,

영광스러운 그분을 “찬미하여라”, 시편 9:35

“영원히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들 하세”. 다니 3:57

⁸하늘과 땅 위와” 땅 아래에 “있는 모든 피조물과”

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아”, 묵시 5,13

영광스러운 그 분을 찬양하라.

“영원히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들 하세”. 다니 3:57

⁹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,

“영원히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들 하세”. 다니 3:57

¹⁰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, 아멘

“영원히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들 하세”. 다니 3:57

(번역본:프란치스칸 원전 1권 아씨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글 88페이지)

위의 찬미가를 읽으시오. 한번 더 읽으시오. 그리고 두번째 읽을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단어 하나 하나를 문장 하나 하나를 숙고해 보시오.

- 하느님에 대하여 성 프란시스가 썼던 낱말들과 구절들을 보아 그가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?
- 또한 그가 다른 피조물과도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?
- 당신을 깊이 감동시킨 네 단어를 골라서 왜 그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시오.
- 우리가 매일 바치는 이 찬미들은 프란시스 성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?
- 당신은 매일 어떻게 하느님을 찬미합니까? 언제 찬미를 바칩니까?
- 개인적인 도전: 하느님에 대해 개인적인 찬미를 쓸 수 있는지 보시오.